



수천년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저 쇠설층처럼... 제주의 대표신문으로 거듭난 한리일보가 오늘(22일) 창간 32주년을 맞는다. 1989년 창간한 한리일보는 공공성과 공정성의 보도 원칙아래 지역발전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썼이 달려왔다. 한리일보는 도민들 곁에서 애환을 함께하며 모두가 행복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열정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오랜 세월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수월봉 쇠설층의 굴곡이 별들의 군무 아래서 아름다운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 이상근기자

“제주경기 불황 원인은 경제정책 부재”

본보 창간 32주년 맞아 도의원 설문조사 결과
 도정 주력해야 할 정책분야 1순위 '경제살리기'

제주특별자치도의원들은 현재 제주 경제(경기) 상황을 '불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같은 불황의 이유로 제주도의 경제정책 부재를 가장 많이 꼽았다. 또 제주도정의 분야별 정책평가에서 복지·문화예술 분야는 긍정 평가가 높았으나 관광·1차 산업 분야는 부정 평가가 긍정보

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한리일보가 22일 창간 32주년을 맞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43명 제주도의 경제정책 부재를 가장 많이 꼽았다. 또 제주도정의 분야별 정책평가에서 복지·문화예술 분야는 긍정 평가가 높았으나 관광·1차 산업 분야는 부정 평가가 긍정보

'불황'이라는 응답자가 33명으로 가장 많았다. 제주경제가 불황인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제주도의 경제정책 부재(16명)'를 가장 많이 꼽았고, '코로나19로 인한 내수부진'은 13명이 택했다.

제주도가 앞으로 가장 주력해야 할 정책분야 1순위는 '경제살리기'를 꼽았고, 2순위 '지하수 환경보전', 3순위는 '새로운 산업발굴'로 나타났다.

제주도정의 코로나19 방역행정에

대해서는 43명 중 35명이 '잘한다·매우 잘한다'고 평가했다.

제주도가 펼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성과 평가 항목에서 복지와 문화 예술분야는 긍정 평가가 높았으나 관광·1차 산업 분야 등은 부정 평가가 긍정보다 높게 나왔다.

'제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육성해야 할 산업(미래 먹거리)'으로는 '농업과 관광을 연계한 6차산업(28명)'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원 지사 “내년 지방선거 불출마”

어제 도정질문서 공식 선언... 선거판 요동

원희룡 제주지사가 21일 내년 6월 제주지사 선거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지방선거판이 요동을 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2·3·7면
 원 지사는 이날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394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내년 6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주특별자치도의원(교육의원 포함)을 선

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는 출마하지 않겠다고 공식선언했다. 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 '올인' 하기 위한 차원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5-6월 중 전당대회를 개최해 차기 지도부를 구성하고, 11월까지 대선 후보를 선출할 계획이다. 이에 원 지사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확정될때까지 제주와 서

을을 오가며 정책이슈 선점과 중앙 정치무대 노출에 주력할 계획이다.

내년 지방선거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와 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에 이어 치러지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내내 선거열풍이 몰아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대선 선거운동과 도지사 선거 운동이 연동되기 때문에 대선 결과가 제주지사 선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원 지사가 도지사 선거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무주공산'이 된 제주지사 선거는 여야 당내 경선부터 치열

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원 지사는 지난해 7월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대권도전에 관한 지사직 '중도하차'는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올 연말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되면 지사직을 내려놓을 것으로 보이지만 당내 경선에서 탈락할 경우 도정 업무 공백을 차단하기 위해 임기를 다 채우수도 있을 것이라 전망도 나온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제주 코로나19 확진 683(0)
 21일 18시 기준

창간 32주년

독자와 더 가깝게

한리일보가 창간 32주년을 맞아 독자 여러분에게 한층 다가서는 신문. 언론계의 새 길을 제시하는 신문으로 거듭 태어납니다.

기획 / '청정 제주, 숲이 미래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숲의 가치와 중요성을 부각하고, 청정 제주의 새로운 발전 동력으로서 방안 등을 모색합니다.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에 대비한 도시 숲, 도시 바람길 숲 등 숲이 도시경쟁력과 삶을 좌우하는 시대인 만큼 마을 숲, 가로 숲의 기능과 역할, 도시계획과 도시 숲 실태 등을 조망하고 활용방안 등을 제시하게 됩니다.

기획 / 환경리포트=Saving the Jeju

제주의 소중한 자산인 지하수의 이용 실태 및 보존·오염 관리 시스템의 문제점을 심층 취재하고 제주지하수의 새로운 체계적 관리시스템을 제시하게 됩니다. 아울러 제품의 생산부터 소비, 관리, 재생 등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는 자연 순환사회 조성을 위한 방안도 모색합니다.

문연로 칼럼

올해는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자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에서 그 최선봉에 있는 게 바로 지방의 화입니다. 제주를 특별자치도에서 광역의회인 도의회만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사당 안팎에서 활약하고 있는 도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철학과 지역현안에 대한 견해를 터놓고 제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의회가 위치한 제주시 문연로의 이름을 따 '문연로 칼럼'으로 명명했습니다. 쌍방 소통이 가능한 공간으로 활용돼 나가겠습니다.

지역현안을 심도 있게 파헤친다

'제주미래연구원'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주지역 현안 정책 연구 뿐만 아니라 온라인 콘텐츠 공동 제작, 제주 현안 세미나 공동 개최, 기획 취재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고 발전방향을 공동 모색하고 있습니다. 협약 이후 1차산업, 환경, 4·3, 뉴딜정책, 도시문제 등 다양한 현안을 놓고 토론을 통해 해법을 제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버·복지 뉴스 강화

여성, 아동, 고용 등 다양한 분야의 복지와 관련한 정보 제공을 위해 복지 뉴스를 별도의 코너로 편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한리일보는 초고령 사회를 맞아 2018년 1월부터 제주도광역치매센터와 손잡고 지역사회 치매관리서비스의 효과적 연계체계 구축, 도민의 치매관리서비스 이용을 독려하기 위한 홍보와 치매 인식제고 등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는 치매예방을 위한 학습지 '치매예방 주간 학습지 뇌톡톡'을 매주 연재하고 있습니다. 매우 수요일 실버와 복지가 있는 차별화된 지면을 선보입니다.

다양한 정보 제공 등 읽을거리 보장

이외에도 한리일보는 서귀포시민의책임기위원회와 올 한 해 '북클럽'에서 이 한 권의 책'이란 이름으로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월 1회 제주에서 활동하는 북클럽과 함께 코로나 시대에 한 권의 책이 전하는 새로운 내일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한 차례 제주의 버섯을 소개하면서 제주의 또 다른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페이지가 마련됐습니다. 자연과 함께 숨 쉬며 사는 버섯을 통해 공존의 가치를 생각해 봅니다. 독자들의 삶을 더욱 윤택하기 위해 생활의 지혜 등을 소개하는 '리빙' 코너를 부활시켜 읽을거리가 풍부한 지면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창간 32주년을 계기로 더욱 정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창간 32주년 특집호 20면 발행... 성원에 감사 드립니다

Jeju 제주특별자치도

청정자연·탄소중립·녹색성장

대한민국의 미래, 도민과 함께 제주가 선도 하겠습니다.

코로나 방역

지역경제 활력

민생 안정

청정 제주, 안전 제주를 위해
방역수칙 준수, 사회적 거리두기
반드시 실천해 주세요.

- 1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경우 외출 자제
- 2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 3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 4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5

창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구호외치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 6

실내·실외(2m 거리유지 안되는 경우) 항상 마스크 착용